

ois, une signification nouvelle. Au siècle suivant, le genre tenait également Milon de Saint-Amand, qui envoie à Charles le Chauve un long poème imité de Virgile, puis Hincmar, archevêque de Reims, et Abbon, abbé de Fleury.

Aucun d'eux toutefois n'ira aussi loin que Raban Maur. Ce bénédictin allemand, né en 784, abbé de Fulda puis archevêque de Mayence, avait reçu à Tours les leçons d'Alcuin. Il est l'auteur de

프랑스

박해현_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얹이 열어 보이는 지혜로 가는 지도

- 츠베탕 토도로프 대담집 출간 화제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웅만한 대가들이라면 본격적인 저서 이외에 특정 대화 상대방과 나눈 대담을 모아 한 권의 책을 펴낸다. 현재 활동중이면서 국내에서도 높은 명성을 누리는 파리의 사상가들 중에서 자크 데리다, 장 보드리야르, 알랭 투르니에가 각각 제자 혹은 언론인과 나눈 대담집을 최근 펴낸 바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 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학적 교양에 관심이 깊은 일반 독자들을 겨냥한 책들이란 점이다.

그런 대담집들 중에서 불가리아 출신의 사상가 츠베탕 토도로프가 펴낸 대담집 《의무와 희열(Devoirs et Delices)》에 선풍 손이 간다. “사람은 제 친구를 위해서라면 의무감이 아니라 희열을 갖고 뭐든지 한다”라는 루소의 말에서 따온 제목이다. 토도로프의 저서 중에서 《구조시학》과 《미하일 바흐친-대화의 원칙》이 우리말로 번역된 탓인지, 국내에서 주로 문학이론이나 기호학 분야에서 읽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프랑스에서 토도로프는 동구권 출신의 기호학 이론가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의 휴머니즘 역사를 관통하면서 정치학, 역사학, 문학, 철학, 인류학을 아우르는 당대의 사상가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문학의 영역을 벗어나 “세계를 쟁기기 위해” 시야를 확대하면서 쓴 책 《아메리카 정복》을 통해 문명간의 대화와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인류학적 주제로 이동했고, 그 이후 사상사와 미술사, 현대 문명 비판 등으로 사유의 틀을 넓혀갔다. 그런 정도의 넓이와 깊이를 갖춘 만큼 그의 대담집 《의무와 희열》은 중흥으로 그려져 있는 그의 사상적 편력기로 팽팽하게 충만해 있다. 주간지 <텔레라마>에서 인문 사회학 도서 서평을 맡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 언론인 카트린 포트뱅이 지난 2001년 3월~10월 사이 토도로프와의 인터뷰를 모아서 만든 책이다. 책의 저자 이름은 토도로프로 돼

있고, 누구와의 인터뷰들이란 것이 표지에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은 ‘행인(行人)의 삶’이다.

공산정권 치하의 불가리아에서 성장기를 보낸 토도로프는 당시 모든 불가리안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탈출욕망에 시달렸다. 어렵게 해외유학 허가를 얻은 그는 1963년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공산주의 체제를 파리의 부르주아지 집안 출신 대학생들이 동경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부에만 전념했고, 일찌감치 언어학, 기호학, 문학 이론가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아직도 파리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는 좌파적 담론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한때 구조주의자로 분류됐지만, 68 학생혁명 이후 프랑스 지식인사회를 장악했던 후기구조주의 사상가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인간과 역사를 본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 한국의 지적 유행과는 거꾸로, ‘반(反)68 사상가’ 진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푸코, 데리다, 부르디외, 라캉 등을 향해 독일 사상(니체, 하이데거,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프랑스판 변형이라고 보면서, 인간 행동의 배후에 있는 책임 있는 주체를 거부하면서 무의식 혹은 구조를 내세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거꾸로 유럽 인문주의자들이 신으로부터 인간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오랜 세기 동안 가꾸어 온 휴머니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간행동의 중심으로서 주체의 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통해 사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문명적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대신, 그만큼 열렬하게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거기에는 2007년 이후에나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자격을 얻는, 변방 국가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유럽의 중심에서 그와는 다른 문명을 깊이 파고든 토도로프의 개인사와 지적 편력 끝의 깨달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는 책 끝에서 “내게 얹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씩 더 지혜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의 얹이 열어 보이는 지혜로 가는 지도가 한국어로도 번역됐으면 좋겠다. ☞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개인적 열정과 사회적 금기, 네루다, 가르델, 그리고 탱고

언젠가 칠레의 유명한 시인인 비센테 우이도브로에게 네루다의 《스무 개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가르델의 탱고풍이죠.”라고 대답했다. 네루다의 시집을 탱고로 부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실험되지 않았지만, 네루다와 가르델, 탱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걸 확인시켜 주듯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영화 〈일포스티노〉에는 가르델이 부른 〈덩굴나무〉란 탱고가 여러 번 들려온다.

최근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음악과 문학에서 중요한 두 인물의 전기 소설이 출판되었다. 하나는 칠레의 작가인 크리스티안 바로스의 《홀아버의 탱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작가 페드로 오르감비데의 《가르델을 위한 탱고》이다. 네루다와 가르델, 그리고 탱고는 뿔뿔히 떨어져 있지만, 이 두 작품의 서술방식은 사뭇 다르다. 크리스티안 바로스의 작품은 ‘전기’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까우며, 오르감비데의 작품은 가르델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허구로 다루기보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그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있다.

《홀아버의 탱고》는 네루다가 미얀마에 칠레 명예영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미얀마의 암표범’이라고 불리는 조시 블리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네루다의 《지상에서의 거처》란 시집에 자주 언급되며, 또한 그 시집에 포함된 몇 편의 시를 쓰게끔 영감을 제공한 주인공이다. 미얀마의 더운 날씨와 가난, 그리고 블리스의 관능성과 신비주의는 네루다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네루다는 사랑의 열정과 질투로 가득한 그녀를 견디지 못한 채 실존적으로 도망치고 만다. 이렇게 블리스는 고독한 네루다의 세계로 침투하고, 거기서 크리스티안 바로스의 전기소설이 탄생한다.

바로스의 작품에서 네루다는 1인칭 화자가 되어 젊은 시절의 사랑을 회고한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상이한 두 문화에 속한 두 사람의 육체적 만남이다. 네루다는 미얀마 여인의 입에 키스하는 것을 혐오한다. 그렇게 하면 그녀를 임신시켜 부처의 화신이 태어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작품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을 맺으면서, 블리스는 정치적인 면으로 선회하고, 영국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게릴라를 언급한다. 바로 여기서 네루다는 미얀마에 경찰로 체류하던 조지 오웰과 같은 인물을 만나고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페드로 오르감비데의 《가르델을 위한 탱고》는 1951년에 있었던 가르델 친구들의 모임으로 시작한다. 가르델이 1935년 6월 24일 콜롬비아의 메데인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16년이 되던 해였다. 거기에는 메데인 공항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기타리스트인 호세 마리아 아길라라도 참석하고, 그는 두 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에 가르델이 수년 전부터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는 말을 전해 준다.

《가르델을 위한 탱고》는 가르델의 삶에서 결정적이었던 요소들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탄생한 그는 그의 어머니 베르타 가데스가 바람둥이 폴 라세르와 사랑을 나눈 산물이었다. 이후 그녀는 아들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건너와 아바스토 지역에 정착한다. 또한 가르델이 빛의 도시라는 파리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탱고를 외설적이라면서 멸시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개선장군처럼 귀환하는 장면도 다루고 있다.

탱고는 사랑을 잃어버린 남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여인이 다시는 자기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비극적인 감정을 다룬다. 이런 감정은 독재와 사회적 억압에 맞서 싸운 많은 라틴아메리카인들을 사로잡았다. 개인적 열정과 사회적 금기는 바로 탱고의 역사이며,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역사인 것이다. **송병선**